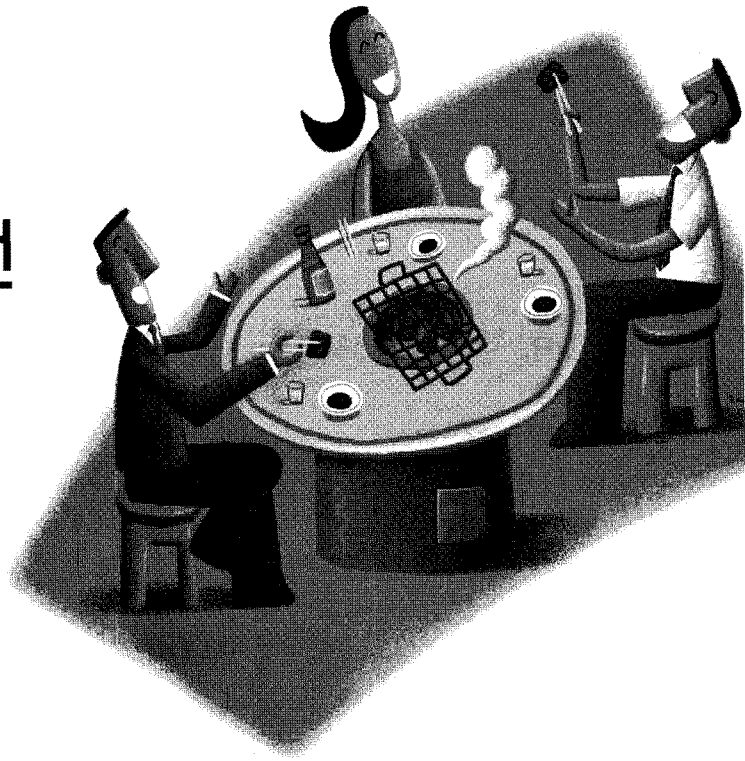


술과 자동차... 그리고 음주운전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 술과 술 발행인

현대인들 삶속에서 술과 자동차를 빼다면... 이런 가정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술과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없으면 안될 만큼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물론 종교적으로 또는 술이 받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술을 자주 마신다. 지난해 주당들이 마신 술 전체 소비량은 339만kl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맥주가 60.7%, 소주 29.6%, 막걸리 5.2%로 나타났고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주류가 4.5%에 달했다. 이를 알기 쉽게 병으로 환산 해보면 소주는 무려 34억5,000만병(360mL 기준)에 달해 국민 1명당(4,800만 명 기준) 72병, 성인(3,700만 명)으로 계산하면 93병이다. 나홀로 1병씩은 마셨다

는 얘기다. 맥주는 44억1,000만병(500mL 기준)으로 1인당 91병, 성인만 따지면 119병이나 된다.

이만 한 술을 마신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 핸들을 잡은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6월말 등록된 자동차는 1,703만3,715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는 2.91명,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89대로 '1가구 1자동차'에 근접하고 있어 이제 자동차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해서 타는, 마치 TV나 냉장고 같은 존재가 되었다. 때문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 할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권하기도 잘하고, 술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음주운전에 대해 은전을 베푸는 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의 소리가 높았는데도 지난 8·15 광복절을 기해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별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다. 말이야 서민들에게 생계 대책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듯 한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사고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음은 불을 보듯 뻔 한 조치라는 게 교통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 술! 알고 마시자

그리스의 철학자 아나카르시스는 “술 한 잔은 건강을 위해, 두 잔은 즐거움을 위해, 석 잔은 방종을 위해, 네 잔은 광란을 위해”라고 했다.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할지를 가늠케 하는 말이다.

중국의 임어당(林語堂)은 이렇게 제안한다. “봄철에는 집 뜰에서 마시고, 여름철에는 교외에서, 가을철에는 배 위에서, 겨울철에는 집안에서 마실 것이며, 밤술은 달을 벗 삼아 마셔야 한다”고 했다.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에서는 어렵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듣기만 해도 멋있는 삶이 아닌가.

공자도 술 마시는 것의 어려움을 말했지만 인류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은 모두 술을 좋아했고 술을 잘 이겨왔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 몸에 나쁘다고 해서 안 마시는 사람이 있다. 물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히 바르게 마시면 이보다 정신에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술이 정신에 미치는 작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러기에 술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은 앵다.

◎ 음주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민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주는 1924년 35도로 시작해서 65년 30도, 73년 25도, 99년 23도, 2001년 22도, 04년 21도, 06년 20도로 내려가더니 소주 업계가 앞 다투어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이제는 17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소주시장 패권을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무학(부산)이 알코올 도수 16.9도 ‘좋은데이’를 대선주조(대전)가 여성층을 겨냥한 알코올 도수 16.7도짜리 저도(低度) 소주를 시장에 선보였다. 그런데 ‘처음처럼’을 인수한 롯데가 소주 도수를 17도 미만으로 낮춰서 TV광고를 통해 안방을 파고들 준비를 갖추고 있어 소주 시장이 또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류업계는 ‘처음처럼’ 신제품의 알코올 도수로 16.8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롯데주류가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 소주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행 방송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인 주류는 TV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인 주류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TV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TV광고가 시작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음주인구가 늘어날 것은 뻔 한 노릇이며, 술을 마시는 횟수도 증가할 것이고, 여성들의 음주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주류회사들은 이처럼 저도주를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 그런가? 아니다. 주당들은 주류회사들이 저도주 소주를 만드는 진짜 이유에 대해선 모르고 있다.

도수가 낮으면 취하기 위해 더 많이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출돼 경제적으로 손해다. 그리고 몸에는 더 많은 알코올이 쌓인다는 사실도 모른다. 이를테

면 과거 30도짜리 소주는 독해서 1병만 마셔도 취기가 돌아 그것으로 끝냈지만 20도짜리는 2병 정도는 마셔야 된다면 소주 값은 두 배, 몸에 들어간 알코올은 10% 포인트만큼 더 들어간 것이다. 저도수의 소주가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란 증거다. 결국 주류 업계 상술에 국민들만 녹아나게 된 것이다.

◎ 운전해야 할 사람에게 술 권하는 사회

미국에서는 1920년 1월부터 1933년 말까지 금주령이 발동된 적이 있었다. 이 영향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금지라든가 술면허가 없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합법적이면 누구나 술도 팔 수 있고 마실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선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자가 늘어났다는 것. 인간은 오히려 불법화될수록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모양이다.

한국의 음주 문화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냐, 술이 얼마나 세냐 하는 것이 '능력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술도 똑같이 마셔야 한다는 게 술자리의 불문율이다. 그렇다 보니 '남에게 먹이는 술' 소비량으로 따지면 한국이 단연 세계 1위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술잔을 돌리는 수작(酬酢)문화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차를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할 사람에게까지 술잔을 건네는 문화는 근절되어야 된다.

“괜찮아 한 잔 정도면 안 걸려...”

걸리고 안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경남 김해시보건소가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 회식을 끝내자' 는 의미의 '도전 1.1.2운동' 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또 회식자리에서 '1.1.2' 라고 외치면 강제로 과음하게 만드는 원샷, 잔 돌리기, 강권, 폭탄주, 2차 술자리 등의 5가지를 하지 말자는 의미의 '오, 노(5, No)' 라고 답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 노' 에서 '잔 돌리기' 를 빼고 '음주운전' 을 넣는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 음주운전 사면 조치는 비싼 대가 치르는 정책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 등 152만 7,770명에 대해 8월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한 법무부 장관은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위기를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됐거나 벌점이 쌓인 150만5,376명이다. 운전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정지된 6만9,605명은 15일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이 쌓인 123만8,157명에 대해선 6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점을 일괄 삭제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조치까지 받은 19만7,614명은 6시간의 특별교통 교육을 받으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해 생계형 운전자를 사면한 것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불만이다. 손보업계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될 것" 이라는 것. 왜냐하면 "과거 추이를 보면 일반 법규 위반 이든 음주운전이든,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권영선, 한승헌, 남찬기 교수가 최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논문에서 "07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이후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만9,236건, 사망자 수는 572명 늘어나고 1조4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권영선 교수는 "사면 조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비효율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면 전후 1년간의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3월 532만 명사면 때는 사고율이 3.11%에서 3.44%로 상승했다. 02년 7월 481만 명 사면 때도 사고율이 4.66%에서 5.11%로 뛰었고 05년 8월 420만 명 사면 때는 5.33%에서 5.82%로 상승했는데,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알아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7,000건이 발생하였으며, 4만8,500명이 다쳤고, 969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음주 정도에 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62년이다.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정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47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스웨덴은 0.05%였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2%로 강화했고, 일본도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조정했다. 독일은 지난

07년 '제로 알코올' 법을 만들어 "21세 이하나 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초보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0%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정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우리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다"는 그릇된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하루 평균 3명이 죽고, 969명이 다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음주운전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다음문제다. 가장이 차를 끌고 나갔다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집안을 생각해보자. 음주운전 때문에 집안이 망해 버린 것이다. 그래도 술 마시고 핸들을 잡고 싶은가. **K**

